

단결로 성장하고 투쟁으로 성숙한 32년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학년 말 업무 및 새 학기 준비가 한창인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업무가 더욱 혼란,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도 굳건히 현장을 지키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3일은 우리의 노동조합이 창립된 지 3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주지하듯 전국적인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기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내외의 갖은 탄압과 분열을 이겨내고 우리 선배님들이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을 창립한 날이 1988년 바로 오늘입니다. 17대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뿌리이자 줄기인 선배들의 피땀 어린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보내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준 그 헌신을 높이 기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시기에 진리 연구와 실천의 교정에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 경영을 일삼던 총장을 퇴진시키는 주체로서 최선봉에 섰고, 마침내 단결투쟁을 통해 총장퇴진을 쟁취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습니다. 또한 부조리하고 무능한 과거 세력에 맞서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연대투쟁을 이끌었고, 최근 학원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데에 성공하는 한편 주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엄동설한 서릿발 황무지에서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단결의 파스함으로 줄기가 자라왔고, 공동체의 발전과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으로 성숙하는 32년을 보냈습니다. 켜켜이 쌓인 우리 공동체의 역사 속에 선후배 조합원 동지들의 손때와 숨결이 묻거나 닿지 않은 곳이 없기에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대학 공동체의 내외적 위기를 극복한 공로가 지대한 직원사회에 대한 합당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원이 정상화된 현실에서도 인력 미충원, 인사적체, 임금 동결 혹은 삭감 제안, 복지정책 퇴행 등 처우가 불안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더하여 각종 보직 및 위원 참여 차단 등 직원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후진국의 수준으로 더욱 퇴보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1945년 조국의 해방공간에 귀국한 독립운동가의 현실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모습을 지켜보는 안타까움과 분노처럼 노동조합의 인내력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17대 노동조합은 동지들의 지혜와 단결을 배후로 삼고 선배들이 물려주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판으로 현실이 주는 과업, 부당한 각종 노동행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전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32주년을 맞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이름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35주년, 40주년에는 미래세대들의 튼튼한 방파제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고 외압에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이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13.

제17대 대구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직원의 복지증진과 대학발전에 기여

이승환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우리대학에서도 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차히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기 시작한 민주화바람과 함께 각 사립대학 단체에서는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할 열망과 열의가 극적으로 끓어올라온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 사립대학에서도 직원들이 결성되어 직원노동조합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20여 개의 사립대학 직원노동조합들이 지난 2월 1일 「장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힘있는 자가 백지위에 정의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로써 땅위에 정의를 쓰겠다”

우리대학에서는 지난 2월 13일 대구시내 수도회관에서 「대구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이 발족하여 직원들도 학교발전에 주체가 되어 학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런 특별인터뷰에서는 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환(경리과 직원)을 만나 직원노동조합의 조직의 구성 및 앞으로 사업발전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노동조합을 구성하게 된 계기와 구성,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이승환—오래전부터 직원 개개인 마음속에 직원노동조합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던 중 지난 85년도 하반기에 직원들이 학교당국에 근무처우개선과 업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던 우리는 그 권고안을 올린 일 부직원들이 보복인사조치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러만 조정부직원들의 조건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었다지만 보복조치로 인해 1년을 더 조건부 직원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직원들이 계속 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사회, 정치적인 것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구성하지 못했습니니다. 그러다가 6·29 선언이후 각 사립대학 및 여러단체에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자료수집과 노동조합법을 연구해 지

난 2월 13일 대구시내 수도회관에서 한림총회를 개최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명에는 2월 16일 가입했으며 2월 24일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남구청에 관

보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의 목적은 회칙에도 기재 되어있듯이 우리대학에 종사하는 직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위향상과 우리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이 대학교육 기관에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승환—예,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보면 노동운동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일관된 위헌입니다.

대학 직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고용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보장된 자유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모순된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제한할 명분도 있습니다.

—직원 노동조합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이승환—이 노동조합은 우리대학에 종사하는 직원 즉 우리대학에서 일하거나 급료를 받는 모든자로 노동조합에 가입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 종속하는 기획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상인 직원은 제외 됩니다.

현재 가입대상자 1천50명 중 1백2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재가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안인구(기대교학과) 교수 1명과 사립운동위원회의 상임위원 7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총무부등 7개부서로 나뉘어 조직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노동조합의 사업방향과 함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행정효율은 사무 재무처장에 직원임용 하위직원의 의견도 학교행정에 반영

이승환—지금까지 여러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 집수하고 있습니다.

직원노동조합의 사업방향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활동할 생각입니다.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생활권과 노동권 향상에 관한 사항, 설립일정의 향상과 합리적 배분의 형성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협회와 추진 측구에 관한 사

람, 대학 자율권 확보에 관한 사항, 대학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추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보에 관한 사항,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인사제도에 관한 것으로 행 사무, 재무처장이 교수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 즉, 학생교수처장들은 교수들이 임용되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 재무처장직은 학교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학교행정에 효율을 제할 수

특별 인터뷰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며 특히 물의 사업은 수립 되어 있으며 현재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보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문제입니다. 우선 초기로 자체적 조직강화를 위한 체육대회를 여의모임을 가지며 근로조건개선문제는 불가산성에 따른 실질임금상향 직급간의 임금격차해소, 상여금 또는 장급수당의 인상문제, 휴일임금문제, 개선,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학교당국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을 구성한 해방과 설립의 활동이 미비해 현재진척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학교당국에 의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환—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과 학교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회의와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더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이 구성된 세를 여러대학과 대구지역 사립대학과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5월말 자료수집을 마치고 6월부터 정식으로 학교당국에 단체협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반사립계 노동조합은 자료집이 폭력과 농성 등으로 자

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우개선과 교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대학과 비교급교가 하위직은 하향

인준필증

제 1296

성명	이승환	직명	노동조합
출생년월일	1947년 1월 1일	성인번호	123456789
대표자직명	대구대학교 총무부장	생년월일	1947년
대표자성명	이승환	생년월일	1947년
대표자성명	이승환	생년월일	1947년

위 노동조합은 규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가맹(변경) 되었으므로 이에 인준함

서기 1988년 4월 13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락

조직되어 있는 반면 삼위직원은 다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지 더욱 많이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에 대한 학교당국과 교수, 학생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교수나 학생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시각부터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개최하여도 명시되어있듯이 우리 직원들도 대학의 주체로 대학발전에 기여할수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창립원칙 3개원칙 접어 됩니다. 학교당국에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승환—지난 2월에 남구청에 설립신고할 때 서류보안을 유지하며 개인적 제직운동서가 바로 발급된것을 보면 학교측에서도 직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학교당국과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여서 학교측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선생님은 우리대학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으며 총무처장과 협조의 학교행정체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승환—처음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83년 9월입니다. 그 전에 지금을 겸임부설교 대구대학교에 인수된 대일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인수후 대구대학교 전이과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이직했습니다.

5년경이나 지났으나 학교행정체제는 여전히 상행체제입니다. 하위직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체제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수를 위해 존재하지만 교직원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부에서 할당되는 임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일부 의견도 상달할수있는 민주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노동조

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승환—힘있는 자가 백지위에 정의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로써 땅위에 정의를 쓰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직원전체가 똘똘이만이라도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수있을것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은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대변하는 위치입니다.

소스도 자신 하나하나가 우리대학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위상을 정립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교수, 직원 삼위일체가 되어 하대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니다.

—직원노동조합은 순수자를 자기단체라 생각합니니다 앞으로 구성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학내 민주화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 류정선 기획부장】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연혁

年	月(日)	内容
2020.	2. 13.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일
2020.	2. 11.	2019학년도 단체(임금)협약 체결
2020.	2. 6.	제73차 임시총회
2019.	11. 9.	조합원 단합 트레킹 대회(경주 무장산)
2019.	8. 27.	제17대 출범식 및 제32차 정기총회
2019.	6. 21.	제17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철환), 부위원장(이승희), 사무국장(정광국)
2018.	10. 30.	단체협약 체결
2018.	8. 28.	제31차 정기총회
2017.	10. 11.	단체협약 체결
2017.	8. 22.	제30차 정기총회
2017.	6. 20.	제16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준희), 부위원장(곽성희), 사무국장(장성대)
2016.	8. 23.	제29차 정기총회
2016.	6. 20.	단체협약 체결
2015.	11. 24.	단체협약 체결
2015.	8. 27.	제28차 정기총회
2015.	7. 14.	직원 특별채용(직종전환) 평가 실시
2015.	7. 8.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실시
2015.	6. 23.	제15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준희), 부위원장(곽성희), 사무국장(장성대)
2014.	8. 28.	제27차 정기총회
2014.	7. 25.	목적적립금 연구위원회 신설 및 운영
2014.	3.~7.	학원 정상화를 위한 각종 활동 전개(컨테이너 농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및 상경 집회 참가, 이사회 노동조합 의견 전달 등)
2014.	2. 27.	단체협약 체결
2014.	2. 26.	임시총회(2014학년도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심의 및 의결)
2014.	1. 14.	제14대 임원 재선출(보궐선거):위원장(이준희), 부위원장(곽성희), 사무국장(장성대)
2013.	6. 27.	임금협약 체결
2013.	5. 9.	제14대 임원선출:위원장(최문덕), 부위원장(김상곤), 사무국장(이덕수)
2012.	10. 13.	2012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개최(본교 대운동장)
2012.	8. 8.	제25차 정기총회
2012.	4. 10.	단체협약 체결
2011.	8. 24.	제24차 정기총회
2011.	7. 28.	단체협약 체결
2011.	6. 3.	제13대 임원선출: 위원장(양춘호), 부위원장(김중호), 사무국장 (김지홍)
2011.	3.~6.	학원정상화를 위한 천막 농성 및 피켓시위 실시
2010.	9. 14.	제23차 정기총회
2010.	7. 20.	특별채용(일반직군 전환) 시험 실시

年	月(日)	内容
2010.	3. 23.	2010학년도 임단협 무교섭 타결(안) 의결, 임단협 체결(7. 27.)
2010.	1. 16.	정이사 후보 7명 선출
2009.	11. 11.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구성(역대 위원장)
2009.	7. 14.	제12대 임원선출 위원장(양춘호), 부위원장(윤미숙), 사무국장(김중호)
2009.	7. 7.	단체협약 체결
2009.	5. 19.	노동조합 창립 제21주년 기념 바자회 ‘행복충전소’ 개최
2008.	11. 1.	2008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개최(장소-구미)
2008.	5. 23.	단체협약 체결
2008.	2. 13.	노동조합 창립 제20주년 기념식
2007.	11. 17.	2007 대구대학교 직원 어울마당 개최(장소-경주)
2007.	9. 14.	제11대 출범식 및 제20차 정기총회
2007.	8. 2.	제11대 임원선출: 위원장(이기동), 부위원장(전재경), 사무국장(이덕수)
2007.	5. 10.	투쟁백서(총장퇴진운동) 발간 배포
2007.	4. 5.	단체협약 체결
2006.	12. 28.	임시총회(안건: 2007학년도 임단협(안)의결 및 대강당건립기금조성 건)
2006.	5. 12.	단체협약 체결
2005.	12. 19.	단체협약 체결
2005.	10. 4.	제9대 총장선거(직원 첫 참여)
2005.	9. 23.	제10대 출범식 및 제18차 정기총회
2005.	8. 31.	교협과 총장선거 직원참여 합의(1차: 13%, 2차: 7%)
2005.	6. 23.	제10대 임원선출: 위원장(김현수), 부위원장(김의규), 사무국(최원태)
2005.	3.~6.	총장퇴진운동 추진
2004.	10. 1.	노동조합 조합원 적립금(1인당 월2만원)적립
2004.	9. 21.	제17차 정기총회
2004.	7. 7.	단체협약 체결
2004.	2. 25.	창립 16주년 기념식 및 임시총회
2003.	9. 23.	제9대 출범식 및 제16차 정기총회
2003.	8. 13.	제9대 임원선출: 위원장(김현수), 부위원장(김의규), 사무국장(장영식)
2003.	5. 7.	단체협약 체결
2002.	9. 21.	제15차 정기총회
2002.	4. 22.	단체협약 체결
2001.	9. 20.	제8대 출범식 및 제14차 정기총회
2001.	8. 24.	제8대 임원선출: 사무국장(김석범)
2001.	8. 8.	제8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선우), 부위원장(오창룡)
2001.	3. 26.	단체협약 체결
2000.	9. 22.	제13차 정기총회
2000.	8. 4.	단체협약 체결
2000.	5. 27.	노동조합 창립 제12주년 기념 체육대회

年	月(日)	内容
1999.	9. 21.	제7대 출범식 및 12차 정기총회
1999.	7. 20.	제7대 임원선출:위원장(이선우), 부위원장(이재영), 사무국장(이종학)
1999.	5. 21.	단체협약 체결
1998.	3. 12.	단체협약 체결
1998.	2. 13.	노동조합 창립 제10주년 기념식
1997.	9. 24.	제6대 출범식 및 제10차 정기총회
1997.	6. 23.	제6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상목), 부위원장(박현구), 사무국장(최도영)
1997.	2. 13.	노동조합 창립 9주년 기념식
1996.	10. 18.	임원 보궐선거선출: 부위원장(강희복)
1996.	9. 24.	제9차 정기총회
1996.	6. 25.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5.	9. 28.	제5대 출범식 및 8차 정기총회
1995.	8. 16.	제5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승팔), 사무국장(김영근)
1995.	7. 13.	제5대 임원선출: 부위원장(박원형)
1995.	1. 20.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4.	9. 15.	제7차 정기총회
1994.	4. 22.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제17차 중앙위원회 개최
1994.	4. 16.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3.	9. 16.	제4대 출범식 및 제6차 정기총회
1993.	8. 18.	제4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양우), 부위원장(박원형), 사무국장(금융주)
1993.	4. 7.	임금협약 체결
1992.	6. 30.	단체(임금)협약 체결
1992.	4. 24.	제5차 정기총회
1992.	3. 20.	제3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영식), 부위원장(신성진), 사무국장(신효식)
1991.	7. 18.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1991.	5. 31.	제4차 정기총회
1991.	5. 11.	노동쟁의 발생신고
1990.	5. 4.	제3차 정기총회
1990.	3. 21.	단체협약 체결
1990.	2. 20.	제2대 임원선출: 위원장(이양우), 부위원장(이성우,김상천,이영식), 사무국장(신성진)
1989.	4. 15.	제2차 정기총회
1989.	4. 7.	임금협약 체결
1988.	12. 12.	단체협약 체결
1988.	4. 9.	제1차 정기총회
1988.	2. 24.	대구시 남구청으로 신고필증 교부
1988.	2. 16.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맹
1988.	2. 13.	노동조합 결성대회 및 초대임원선출: 위원장(이승팔), 부위원장(안인구,홍의용,이화순), 사무국장(이성우,배영배)